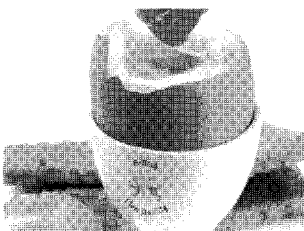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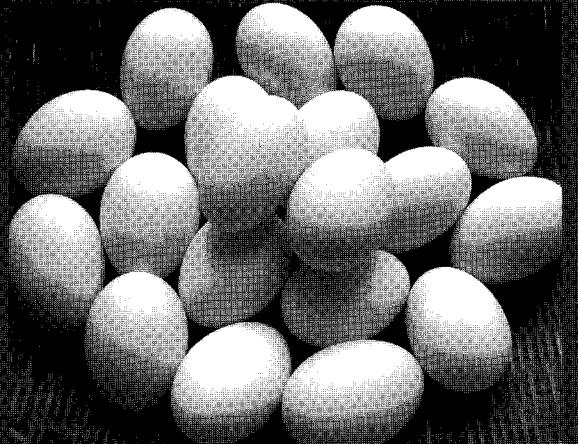


출처 : Farm Business

영국

오리알, 대중화에 첫 걸음을 내딛는다!



영국에서 실시되었던 한 조사에서 13군데의 대형마트 중 단지 1군데만 오리알을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

으며, 2군데에서만 상품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소매, 음식 체인업체 등에 연간 7백만개의 오리알을 납품하고 있는 영국의 Watercress Lane은 본래 부화장으로 1일령의 오리를 계열업체와 가공업체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주당 25,000개의 알을 거래하던 주요 거래처가 사업 정리(청산)에 들어가면서 다른 납품처를 찾아야만 했다고 업체 대표는 Paul은 말했다.

“사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며, “남아도는 매주 25,000개를 납품할 납품처를 찾는 것 만큼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표 Paul과 Daniels이 전했다.

2008년 1월, 'Watercress Lane Duck Egg' 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오리알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는 여러 도·소매업체와 음식 체인업체를 대상으로 오리알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대형마트에서 공공 수요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해 이 업체의 오리알 판매량이 45% 증가하면서

8,000수의 오리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영국 다른 지역에 프랜차이즈를 설립하여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다. 1일령 오리의 수요 역시 크게 늘어 주당 4,500수에 달하게 되었다고 Farm Business를 통해 전해왔다. Paul과 Daniels은 2009년 후반기에 수출증명서를 획득하여 1일령의 오리를 아일랜드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이 업체의 총 매출액의 70%는 알에서, 나머지는 30%는 부화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후자가 더 수지가 맞는 사업이라고 한다. 업체의 두 대표는 오리알의 대중화를 위해 다각적 홍보를 펼치며, 주요 판매지역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맛, 건강상 이점 등을 부각하면서 새롭고 획기적인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

현재 Watercress Lane 부화장은 RSPCA(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의 Freedom Food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우리는 RSPCA(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의 Freedom Food의 규정에 따라 오리를 사육하기 때문에 상품의 신선도와 품질, 안전성, 복지에 대한 보증할 수 있다”고 Daniels이 말하며, 더불어 “우리는 살모넬라균에 백신 접종을 하고, 박스와 알에 유통기한 날짜를 직접 날인하고 있다. 현재 벌이고 있는 광고와 다양한 PR로 미래의 오리알 산업이 더욱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